

다이고쿠덴

헤이안쿄의 정전(正殿)이었던 조도인은 헤이안쿄 행정의 중심이었으며, 다이고쿠덴은 국가의 주요 행사를 치르는 장소였습니다. 다이고쿠덴에는 천황의 옥좌가 놓여 있었으며 이곳에서 정무를 관장하고 중요한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지금의 다이고쿠덴은 당시의 규모를 축소 복원한 것으로 본래는 약 2 배에 이르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지금은 참배를 올리는 장소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헤이안 신궁에서도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혼텐은 다이고쿠덴의 바로 뒤편에 자리하며, 이곳에서는 간무 천황(737-806)과 고메이 천황(1831-1866)을 모시고 있습니다. 두 천황은 저마다 헤이안쿄에서 태평성대를 이룬 최초 및 최후의 천황입니다. 혼텐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이고쿠덴의 돌계단은 누구나 올라가 참배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이고쿠덴의 돌계단에 올라서면 신체를 모시는 샤텐의 내부를 볼 수 있으며, 그곳에서 뒤로 돌아서면 안뜰과 오텐문 너머까지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이고쿠덴은 오텐문과 밧코로, 소류로를 포함하여 경내에 있는 다른 건축물과 함께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